

헤어진 애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재회 성공' 방법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상대방과 내 사랑의 크기가 똑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야속하게도 연인의 마음이 변해버려 강제로 이별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이별을 겪었지만 아직 상대를 사랑해 '재회'를 하고 싶다면, SNS 등에서 연애 고수들이 공개한 '재회 성공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더 이상 내가 소중하지 않아 떠나간 사람을 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인사이트' (insight.co.kr)가 소개한 다음의 방법을 숙지해 재회의 가능성을 높여보는 것도 좋겠다.

1. 절대 매달리지 않기

일단 이별을 고한 상대는 당신에게 큰 실망을 했을 확률이 높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작별을 고한 상대에게 무작정 매달리는 것은 자칫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울고불고 매달릴 경우 오히려 상대가 당신에게 더욱 질릴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과하기

이미 당신을 포기할 정도로 지친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보자. 당신에게 한없이 잘해주던 그 사람이 왜 이별을 말하게 됐는지 되돌아보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자.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진 뒤에는 반성하는 내용을 상대에게 메시지나 전화로 알리자. 그렇게 반성한다면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3. 장문의 메시지 절대 보내지 않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상대가 아닌 내 입장과 내 감정만 쏟아내는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런 모습은 "애는 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이기적이네!"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니 일단 휴대폰을 내려놓고 감정을 추스르자. 이성을 되찾기 전까지 메시로나 전화는 금물이다.

4. 한 달간 침묵했다가 가볍게 연락하기

이별을 하게 됐다면, 앞서 말했 듯이 일단 진심을 다해 사과한 뒤 조금해하지 말자. 설불리 행복한 척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고, 한 달간 침묵하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와의 접점이 있는 SNS에 일상을 올리고, 상대방에게도 잘 지내냐는 가벼운 문자를 보내보자. 문자는 늦은 밤이나 새벽이 아닌 한낮에 보내는 게 좋다.

'날씨가 좋아 문득 네가 생각났어. 잘 지내?' 처럼 산뜻하고 가벼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쯤 지나면 상대방도 당신의 좋았던 점이 떠오를 시기라 재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shutterstock

OCEYELASH

비밀의기술 오롯한 퀄리티의
속눈썹 연장 서비스



Special Offer

첫 방문시

"OCeyelash town news"를
연급해 주시면 \$20 할인혜택
해드리겠습니다.

Expire date April 2023

<수강생 모집>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인 수업,
프라이빗 일대일 수강생 모집 중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재수강 이제는 당신의 성장할 기회!

- 한올 한올 정확한 1:1 시술 •
- 100% 고급 재료 사용 •
- 모근 보호시술로 건강한 속눈썹 •

상담 및 예약

714.948.0006

4128 w commonwealth ave.
#203, Fullerton CA 92833



SLAB YARD for
KITCHEN COUNTERTOP
Marble Yard. Inc.

MARBLE YARD INC.

마블야드

714.778.9901

Steve Han

(지금 전화 예약 주세요)



SLAB

- QUARTZITE
- MARBLE
- GRANITE
- QUARTZ
- PORCELAIN



900 E Vermont Ave. Anaheim, CA 92805
www.marbleyard.com